

수입차 전문 수리  
블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진주시 덕진구 인우동1기 943-9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조기문법무사  
해솔학행정사

법무사 / 행정사 조 기 문

(우)54859 전북특별자치도 진주시 덕진구 민성동1로 55, 8층 805호(민성동, 오케이타워1기)  
Mobile 010-2053-8741 Tel. 063-223-8741  
Fax. 063-223-8742 E-mail. jokimoon@naver.com

2026년 1월 26일(월) 제 3253호

## 전북도, '5극3특 성장엔진' 3대 산업 선점전

### 신재생·AI모빌리티·푸드헬스테크 새만금 31조 투자 7GW 조성 추진 피지컬AI 실증 인프라 확보 2월 최종 선정 6월 예산 반영 전망

전북도가 정부의 '5극3특 성장엔진' 사업에서 신재생에너지, 첨단AI모빌리티, 푸드·헬스테크 등 3개 분야 선정을 목표로 대응에 나섰다.

이번 사업으로 수도권 집중 속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전북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지도를 그릴 수 있을지 기대된다.

지난 23일 도에 따르면 5극3특 전략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탈피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5극)과 3개 특별자치도(3특)로 재편하는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일극체제의 구조를 타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대전환"이라며 5극3특 체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전북은 '3특'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산업기반, 성장가능성, 앵커기업 투자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권역별로 2-3개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전북이 성장엔진으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새만금의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를 토대로 한다. 2030년까지 새만금과 고창·부안 해상에 총 31조 원을 투자해 해상풍력 4GW, 육상·수상 태양광 3GW 등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현재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이 추진되고 있으나 전력 생산의 높은 변동성과 낮은 계통 안정성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전북은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을 저장·운송이 가능한 수소를 전환하는 P2G 기술을 적용해 생산-저장-활용으로 이어지는 에너지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RE100산단과 연계해 수소생산·저장, 연료전지, 모빌리티까지 결합한 대규모 시장 창출을 구상하고 있다.

첨단AI모빌리티 분야에서 전북은 현대자동차, 타타대우, TYM, LS엔트론 등 완성차 중심의 소재·부품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해 8월 1조 원 규모의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사업' 유치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으로 피지컬AI 성장 기반을 확보했다. 새만금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군산·완주 산업단지,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등 전국 유일의 실증 인프라를 갖춰 제조산업 디지털 전환의 국가 핵심거점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푸드·헬스테크 산업은 전북만의 차별화된 강점으로 꼽힌다. 김제의 종자·스마트농업, 순창의 발효미생물,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대체육·동물의약품,

정읍의 전임상 인프라와 영장류 자원, 남원의 천연물·화장품 등 지역별 특화 자원을 고루 갖추고 있다. 특히 R&D에서 비임상(GLP), 임상(GCP), 완제품 생산까지 한 곳에서 연결되는 '원링크 시스템'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국제 연구기관과 대학병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며, 전북특별법 특례와 새만금 메가센드박스를 결합해 제품의 신속한 상용화와 비용 효율성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선정된 성장엔진 산업에 인재 양성, 강력한 규제완화, R&D-인프라, 제

정, 펀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은 지난해 10월 희망 산업을 제출한 뒤 산업통상자원부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오는 2월 최종 선정과 지원 패키지가 마련되고, 6월까지 권역별 산업 육성계획 수립과 예산 반영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전북은 새만금이라는 국가적 자산과 함께 에너지, 모빌리티, 바이오 분야에서 타 지역이 갖추지 못한 실증 인프라와 산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신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도민과 함께하는 2026년 시군 방문 - 군산 23일 군산시청에서 열린 '2026년 시군 방문'에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문승우 전북도지사, 김임준 군산시장 및 참석자들이 올림픽 유치 기원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사진=전북자치도>

## 도의회 오늘 임시회 개회...도정·교육 방향 청취

### 제424회 26일~2월6일 12일간 조례 8건 등 안건, 2월6일 의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2026년 첫 회기인 제424회 임시회를 1월 26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 12일 간 연다.

올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모두 9회(정례회 2회, 임시회 7회)의 회기를 열어 123일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다.

제4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관영 도지사와 유정기 교육감 관련대

행의 2026년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시책 방향을 청취한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장연국 의원(비례)이 2026년 신년 계획 및 중점 실행과제를 담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또 10명의 의원이 지역 현안 등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등 전북 유치 결의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 촉구 결의안 ▲치매 임의후견제도 활성화 촉구 결의안 ▲

석면건축물 철거 전 위험성 관리·유지 보수 예산 국비 지원 및 소량 폐석면 처리 체계 구축 촉구 결의안 등의 대정부 건의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실·국·원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사업장과 민생 현장도 방문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안건(조례안 8건, 결의안 1건, 동의안 2건)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장정철 기자

## 국힘 도당 "반(反)독점 외치더니 합당 숙고...혁신당 실망" 비판

### 중대선거구제 입장 공개 질의 "민주당...개혁 구호는 어디로" "6·3 지선 대안세력" 지지 호소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최근 자료를 통해 "조국혁신당은 그동안 민주당 입장을 준비했던 것이었나"며 강하게 비판했다.

도당은 "그동안 전북의 일당 독점을 비판하며 민주당의 대안 세력이라 자처했던 조국혁신당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에 숙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실망스럽다"며 "혁신당이 강조해왔던 중대선거구제와 정치 구조 개혁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공

개 질의했다.

특히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조국혁신당은 그동안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통해 민주당의 일당 독점 구조를 깨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해 온 만큼 민주당에 입당한다면 개혁에 대한 입장은 변함 없겠는지 묻고 싶다"고 직격했다.

도당은 아울러 "전북의 유일한 수권 정당이자 제1야당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적인 지역 발전을 위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대안 세력으로서 끝까지 성실히 나아가 갈 것을 도민들에게 약속드린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장정철 기자

## 전북 '글로벌생명경제도시' 10년 청사진

### 전북자치도 첫 최상위 법정계획 설명회·공청회 거쳐 비전 제시

전북도가 향후 10년 지역 발전의 방향을 담은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안)'을 마련, 도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에 본격 나섰다.

이번 종합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도 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중·단기 특화 발전 전략을 담았다. 계획 수립에는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도교육청과 도내 14개 시·군이 함께 참여했다.

종합계획은 수립은 2024년 12월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시군 회의, 전략(안) 보고회, 전문가 자문, 종합계획(안) 보고회 등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됐다.

전북자치도와 전북연구원은 공청회에 앞서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2일간(1.20.~1.21.) 권역별로 ▲익산(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무주(무주, 진안, 장수), ▲정읍(정읍, 고창, 부안), ▲남원(남원, 임실순창)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도민 및 공무원 의견을 사전에 수렴했다.

또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 수립 공청회'를 열고 계획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공유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시·군 공무원과 전문가, 기업인,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종합계획(안)의 비전으로 '사람·자연·기술이 함께 성장하는 생명경제도시 전북'을 제시하고, ▲생명경제 글로벌 중심 도약 ▲전환산업의 글로벌 성장 ▲연결도시의 세계적 확장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도민 행복 증진 ▲연결도시 구축 ▲자치분권 확대 등 5대 추진전략이 담겼다.

이날 공청회는 전북연구원의 종합계획(안) 발표에 이어 분야별 전문가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좌장을 맡은 원광대학교 이동기 교수는 "이번 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방향과 목표, 전략과 과제에 체계화한 종합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주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의 심의와 도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중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 무주군의 번영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새로운 변화, 함께하는 의정, 내일을 준비하는  
무주군의회가 되겠습니다



# 전북도, 외국인 유학생 '원스톱 지원'...취업·정착까지

### 원광대 중심 통합지원체계 구축 대학 분산 지원 연계·통합 추진 비자·법률·노동 상담 공동 지원 취업 연계·지역 정주까지 뒷받침

전북도가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과 생활, 취업, 지역 정착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내 대학 국제교류부서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 설명회를 열고, 유학생 지원 정책의 추진 방향과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이번 사업은 원광대학교의 글로벌대학 지역상생사업과 연계해, 대학별로 분산된 외국인 유학생 지원 기능을 도 차원에서 연계·통합함으로써 대학 현장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유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과 생활

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원광대를 중심으로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행정·법률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대응해 온 비자 변경, 체류 자격, 법률·노동·생활 상담 등을 공동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외국인 유학생 입학 이후 상담체계 구축 ▲비자·행정·법률·노동 등 생활 밀착형 지원 연계 ▲도내 유학생 및 기업 실태조사 ▲취업 연계 및 지역 정주 지원 ▲도내 대학 간 국제교류 협력체계 운영 등이다.

특히 비자와 노동, 법률 문제 등 대학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분야를 통합 지원해 유학생의 학업 집중도를 높이고, 졸업 이후 취업과 지역 정착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강연석 원광대 국제교류처장은 "원광



전북도는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해 3월 도·원광대·생산성본부·참프리의 외국인유학생 취창업지원 협약식. <사진=전북도>

대 글로벌대학 상생사업 재원을 바탕으로 도내 대학과 유학생 지원을 함께 추진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며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통합지원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앞으로 도내 대학과 지속적

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이 전북에서 학업과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 정청래 "혁신당과 합당 꼭 가야 할 길" 강행 의지

### "언젠가 누군가 테이프 끊어야" 최고위원 일부 불참 협의의 논란 친명 반발 속 전당원투표



정청래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 친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합당은 꼭 가야 할 길이며, 언젠가 누군가는 테이프를 끊어야 하는 일"이라며 강행 방침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제 합당 제안으로 인해 놀라고 당황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 대표는 '강득구 이언주 황명선 등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합당에 반발하면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것'과 관련, "송구스러움은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대표가 먼저 제안하지 않고 고서는 지방선거 전 (합당) 시간 상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며 "사과할 각오로 제안했다"

이어 "경기도 게임도 싸움도 승리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며 "정치도 마찬가지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 싸울 필요가 없는 싸움은 피하고 같은 편끼리는 싸우지 않고 힘을 합쳐 (적과) 싸우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점이 열렸으니 최종 종착지는 모두 당원들의 토론과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당원 투표에서 가결되면 (합당) 가는 것이고, 부결되면 멈추는

것이다. 저도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전당원 뜻을 따를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저는 당심과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졌다"며 "이제 당원들께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나오는 길인지 문제를 풀어달라"고 합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 대표의 합당 추진에 반대해온 강득구, 이언주, 황명선 등 친명 최고위원들은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강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합당 제안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사전에 정해놓은 9시 50분 기자회견을 불과 20분 앞두고 열린 오늘 회의는 논의가 아니라 당 대표의 독단적 결정 사안을 전달받은 일방적 통보의 자리였다"고 반발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당의 진로를 좌우하는 합당은 지도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당원의 뜻을 묻고, 당원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며 "최고위원들마저 오늘 아침 갑작스레 소집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 소식을 처음 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추진 과정의 문제가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 한국갤럽 조사 "민주당 43%·국힘 22%" 격차 두 배로

### 국힘 2주 연속 하락세 이어져 장동혁 '8일 단식' 역풍 초래 중도층 국힘 13%...무당 35%

'한국갤럽' 조사 결과,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절반수준인 20% 초반대로 추락했다.

지난 23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20~22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2%,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이외 정당/단체 2%,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7%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2%포인트 반등했으나 국민의힘은 2%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했다. 장 대표 단식 기간 중에 4%포인트가 급락한 셈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작년 8월 2주차

(22%) 이래 최저치이다. 8월 중순 이후 여당 지지도 40% 내외, 국민의힘 20% 대 초중반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4%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에서는 55%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13%,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5%다.

지역별로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에서만 민주당을 앞섰을 뿐, 나머지 지역에선 모두 민주당에 밀렸다.

서울은 민주당 40%, 국민의힘 20%로 격차가 더블포인트로 벌어졌고 인천/경기(18%), 대전세종충청(16%), 광주전라(12%)에선 10%대로 추락했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민주당 32%, 국민의힘 29%로 민주당이 오차범위내에서 국민의힘을 앞섰다.

이와함께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묻은 결과(2점 척도, 재질문 1회), 61%가 긍정 평가했고



지난 23일 갤럽에 따르면 20~22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2%, 조국혁신당 3%로 집계됐다.

30%는 부정 평가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민주당 지지층(93%), 성향 진보층(86%), '잘못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72%)과 보수층(59%)에 많았다. 중도층은 65%가 긍정적, 23%가 부정적으로 봤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에서 긍정

률 70%대, 30대와 60대에서 50%대, 20대와 70대 이상에서 40%대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서울=김영목기자

## 전북도·군산시 '서해안 도약' 동행...현안 지원 논의

### 도 '2026 시군방문' 군산서 개최 조촌·미룡 침수예방 배수시설확충 개어도항 480억 투입 개발 본격화

전북도가 군산시와 함께 서해안 시대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다.

도는 23일 오후 군산시청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2026년 시군 방문' 행사를 개최하고 군산시 도약을 위한 동행 비전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침수 피해 예방과 도서 지역 어항 정비,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등 군산의 미래가 담긴 현안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도와 군산시가 가장 먼저 속도를 내는

분야는 지역 맞춤형 재난 예방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다. 조촌지구에는 2030년까지 408억 원(도비 204억)을 투입해 배수펌프장과 빗물저류지, 배수 개선 시설 등을 구축한다.

지난해 9월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 사업은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2028년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

미룡지구 역시 489억 원 규모로 2027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2027년 행안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 대응에 적극 나선다.

미룡지구에는 분당 1,800㎡ 용량의 배수펌프장과 9,800㎡ 규모의 우수지, 4.5km에 달하는 우수관로가 설치돼 집

중후우 시 침수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도서 지역 어업인들의 오랜 숙원도 해결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99척의 어선이 등록된 개야도항은 2019년 2월 국가어항으로 승격됐음에도 6년간 개발이 지연돼 왔다.

올해 10억 원 규모의 설계 용역비가 확보되면 서, 점안시설 부족으로 어선 상시 정박이 불가능해 생업에 지장을 받은 어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480억 원을 투입해 2033년까지 방파제 연장, 호안 확충, 점안시설 확장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하루 평균 800여 명이 이용하는 군산 노인종합복지관은 별관동 노후화도 벽체 균열이 다수 발생하고 공간 협소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구조적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으나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도는 활용도가 낮은 게이트볼장 부지에 신규 시설 증축 등 대비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총사업

비 55억원 규모로 올해부터 3년간 진행 된다.

군산을 서해안권 해양관광 중심지로 탈바꿈시킬 금란도 항만 재개발 사업도 타력받는다.

202만㎡ 규모의 금란도는 제3차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된 국가사업이지만, 접근·기반시설 여건 문제 등으로 민간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어왔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 수정 용역과 함께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통해 진입교량의 차도교 전환 필요성을 역설하고, 지역 요구사항이 국가 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군산은 새만금과 연계한 서해안 발전의 전초기지"라며 "풍수해 예방과 어항 개발, 노인복지까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 겨울철 3대 전기제품 사용 안전 수칙



전기장판은 이불 겹겹이 덮는채로 사용 금지



난방기구 주위에 인화물질 두지 않기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코드 뽑기

# “2026 전주시, 청년과 함께 달린다!”

## 청년희망도시 시행계획 수립 5개 분야 86개 사업 추진

전주시가 2026년 청년정책을 새롭게 정비해 청년들이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도시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시는 지난 23일 청년이음전주에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청년 도전기회 확대 △체감형 정착지원 강화 △청년주도 참여기반 강화 위한 청년희망도시 시행계획 3대 방향을 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청년이 모이고 머무르며 함께 살아가는 전주’라는 비전 아래 총 544억5900만원을 투입해 △일자리

△주거·금융 △문화·교육 △복지 △참여·권리 총 5개 분야 8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 분야에는 34개 사업에 222억 6000만원을 투입해 맞춤형 인력양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고, 청년 창업가 및 청년농업인 발굴·육성을 추진한다. 또 △전주기업반 취업지원 △출향청년 채용지원 △청년취업2000 등을 통해 지역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뒷받침하고, 올해 신규사업인 ‘소규모 점포 청년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할 창업 활성화에 나선다.

또 주거·금융 분야의 경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8개 사업에 166억 8400만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문화·교육 분야는 14개 사업에 26억5000만원이 투입되며, 이를 통해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과 지속 가능한 예술활동 기반 마련, 청년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등을 도모하게 된다. 특히 청년문화예술페스티벌의 경우 지원 대상이 기존 19세에서 20세까지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시는 또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의 학업과 역량 개발 부담을 줄이면서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지원에 나선다.

여기에 시는 복지 분야 16개 사업에 86억8200만원을 투입해 자립준비청년과 군복무 청년, 신혼부부, 임산부 등 상황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청년부부 결혼지원’ 사업

을 새롭게 추진해 청년의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고, 청년이 구직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여학시험 응시료 지원 △교통비 지원 △면접정장 무료대여 등 취업준비 지원도 확대된다.

시는 참여·권리 분야의 경우 14개 사업에 42억3700만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청년이음전주를 거점으로 한 청년협의체 운영과 정책 포럼·간담회, 청년희망단 운영, 각종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이 정책과 사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한다.

시는 이번 정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분야별 세부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추진 성과를 점검해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성명서 발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성명서 이주노동자 3m 높이 추락 사고 산재 적용 인돼

지난 23일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단체는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6항을 즉시 폐지하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6항 폐지를 촉구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김제 돼지농장에서 가림막 보수를 하던 이주노동자가 3m 높이에서 추락해 뇌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추락한 이주노동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조 6항 적용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범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조항에 의해 “산재 적용 혜택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관계자는 “현재 농업·어업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산재보험 의무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농업과 수렵이 별도의 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큰 사고가 발생할 경우 농장주와 재해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노동자 근무 환경은 ‘중장비 사용’, ‘고소 작업’, ‘화학물질 노출’ 등이 많아 중대재해로 이어지고 있으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이유로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것을 심각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김명태 기자

# “AI로 전주의 비전 알리는 정책포럼 열린다!”

## 29일 ‘전주, AI도시 도약’ 주제

전주시가 후백제의 왕도 복원과 AI 전환시대 전주의 미래 비전 제시 관련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댄다.

시와 전주시정연구원은 오는 29일 후백제 왕도의 전주 과제와 디지털 아카이빙에 대한 추진 전략 ‘천년전주 역사와

AI도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정책포럼은 정동영·김윤덕·이성욱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열린다.

포럼은 ‘전주, 후백제 왕도에서 AI도시로의 도약’ 주제로 천년의 역사를 품은 후백제 왕도 전주가 AI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과제와 추진 전략,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박태웅 녹서포럼의장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2개 분야 4개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이날 포럼에서는 정창덕 전국대학총장연합회회 회장을 좌장으로 이규훈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소장과 조범종 우석대학교 교수, 이육근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미래전략센터장,

이상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김추린 전주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시는 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후백제 왕도로서 전주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역사문화 관광 콘텐츠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 평화사회복지관 놀이·체육공간 개소

## 상상누림터·스크린파크골프 개소식 ICT 융복합 스마트 놀이

전주시 평화동에 주민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도울 ICT 융복합 스마트 놀이·체육 공간이 문을 열었다.

전주시 평화사회복지관(관장 전길배)은 지난 23일 복지관에 새롭게 마련된 ‘상상누림터’와 ‘스크린파크골프’의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은 지역 주민과 시의원,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전달 △경과보고 △테이프 커팅 △시설 라운딩 및 체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별관 지하와 복지관 내 강당에 총 240.2㎡ 규모로 조성된 ‘상상누림터’는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KOVACA) 주관 국비 공



전주시 평화사회복지관(관장 전길배)은 23일 복지관에 새롭게 마련된 ‘상상누림터’와 ‘스크린파크골프’의 개소식을 가졌다

모사업에 선정돼 새롭게 구축된 신기술 이곳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 VR·AR·홀로그래프·맵핑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관광·공연·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 복지관 1층에 마련된 ‘스크린파크골프’는 날씨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로, 주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이웃 간 자연스러운 관계망 형성을 돕는 지역사회의 새로운 소통 공간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은 복지관 내에 조성된 첨단 VR 기기와 스크린 골프 시설을 직접 체험하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평화사회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상상누림터와 스크린파크골프 개소를 계기로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며, 지역 복지 거점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주덕진소방서 ‘예비 응급구조사’ 동승실습 운영

### 응급구조 인제 교육 과정

전주덕진소방서는 전주비전대학교 응급구조과 학생을 대상으로 구급차 동승실습을 운영했다.

동승실습은 대학과 소방기관 간 협력을 통해 미래 응급구조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으로 마련됐다.

실습은 26일부터 오는 2월 20일까지 4주간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이어진다.

실습은 전주비전대학교 응급구조과 2학년 학생 8명이 참여해 금암·전미·아중·조촌·팔복119안전센터에 배치되어 실제 구급 현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게 된다.

학생들은 응급환자 평가와 응급처치, 구급대의 현장 대응 절차 등 구급 업무 전반을 직접 경험하며, 현장 중심 교육과 지도 위주 교육을 받는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실습 시작 전 안전교육과 운영 안내를 실시하고 실습 기간 동안 체계적인 관리와 지도를 통해 안전하고 내실 있는 실습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현장 대응에 대한 이해를 높여 향후 응급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덕진소방서 임체화 구급팀장은 “앞으로도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응급의료 체계 강화와 인재 양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덕진소방서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원광보건대학교 응급구조과 학생을 대상으로 구급차 동승실습을 운영하며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체계적인 실습 교육을 추진했다.

/김명태 기자

# 전주시 숙박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 시행

## 국내외 체류형 관광객 유치

전주시가 체류형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숙박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시는 전주로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고 숙박을 포함한 관광 패키지를 제공하는 여행업체들에 대한 ‘숙박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로, 전주시에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고 숙박을 포함한 관광상품을 운영하는 업체들이다.



해당 여행사에는 내국인 10명 이상 또는 외국인 5명 이상의 관광객이 숙박 1일

과 관광지 1개소, 음식점 1개소 이상 이용하면 1인당 숙박비 2만원을 지원한다.

또 2박의 경우에는 숙박 2일과 관광지 1개소, 음식점 2개소 이상 이용하면 1인당 숙박비 3만 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한복체험과 비빔밥체험, 부채 만들기 체험 등 전주에서 유료 문화체험을 이용할 경우에는 1인당 5000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행업체가 여행 3일 전까지 사전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여행 완료 후 20일 이내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 전주 효자동 이태훈 씨, 복지재단에 300만원 기부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식)은 지난 23일 전주 효자동에 거주하는 이태훈 씨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기부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된 기부금은 아동복지시설을 통해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침대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두 명의 자녀를 둔 이태훈 씨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

게 됐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시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방식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은 “아이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이태훈 기부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면서 “전달받은 기부금은 아동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 지역 대학생 4명 ‘아시아태평양지부’ 인턴 파견

## 글로벌 역량 강화

### 전주시와 국제기구 교두보 역할

전주시는 26일부터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이하, UCLG ASPAC)에 지역 대학생 4명을 인턴으로 파견하기로 했다.

UCLG는 140개국, 24만여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 가입한 기관으로, UCLG

ASPAC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주시는 국내 28개 회원 도시와 함께 18년도부터 활동해왔다.

전주시와 UCLG ASPAC 간의 청년인턴 파견을 위한 협약은 2019년부터 진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국제기구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실질적인 국제협력 체계를 다져왔다.

파견되는 청년인턴들은 2026년 1월부터

2월까지 4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UCLG ASPAC 사무국에서 근무하며, 전주시와 국제기구 간 소통 및 사업 추진 협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전주시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의 해외 홍보, 세계 지방정부연합 주요 동향 및 정책 조사·공유 등 다양한 국제 실무를 경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파견에서는 ‘글로벌전주’

라는 SNS 계정을 활용한 활동을 통해 전주시를 홍보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김수미 전주시 국제협력담당관은 “이번 사업은 지역 청년에게 국제무대에서 현장 체험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전주시의 글로벌 정책과 도시 브랜드를 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 정부, 4조4천억 원 규모 벤처펀드 조성

## 모태펀드 2조1천억 원 출자 AI·딥테크 유니콘 육성 중점 투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 김성범), 한국벤처투자(대표 이대희)와 함께 지난 23일 '모태펀드 2026년 1차 정기 출자공고'를 통해 2.1조원을 출자해 4.4조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1차 정기 출자사업의 주요 특징, 소관부처별 출자규모는 다음과 같다.

(전략 육성)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해 기업 성장단계별로 중점 투자하는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를 1.3조원 규모로 본격 추진한다.

(지역성장) 비수도권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 지역사회, 민간 등과 함께 지역에 중점 투자하는 지역성장펀드를 모펀드 4000억원, 자펀드 7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글로벌) 1,300억원을 출자하는 글로벌 펀드는 수시 출자 분야 신설, 글로벌 모펀드 조성 등을 통해 해외 투자자금 유치를 촉진한다.

(시장 보완 및 회수 활성화) 청년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에 나서는데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초기,

청년창업, 재도전펀드 등을 65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M&A, 세컨더리 전용 펀드 3000억원 조성을 통해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산업 특화 지원) 문화산업 대작 지식재산(IP) 개발을 위한 대규모 전용펀드, 바다생활권 특화 펀드 등 산업특수성을 반영한 펀드를 7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차세대 유니콘 프로젝트, 지역성장, 글로벌, 창업초기, 재도전, 청년창업, 회수활성화 등 총 13개 분야에 1.6조원을 출자해 3.6조원 이상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출자분야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해 기업 성장단계별로 집중 투자하는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에 5,500억원을 출자해 1.3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25년 2차 추경'으로 첫발을 땀 '스타트업', '스케일업'펀드를 7400억원 추가 조성해 유망창업기업 발굴·육성부터 100억원 이상 스케일업 투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유니콘 후보기업에 민·관 합동 600억원 이상 투·융자를 지원하는 '유니콘' 펀드를 신설해 5개 내외 기업에 3000억원 이상 지원하고, 해외 VC의 대규모 투자를 교두보로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해외진출' 펀드도 2500억원 이상 신규 조성해 유니콘을 넘어 K-빅테크로 성장을 촉진한다.

지역 최초의 유니콘 탄생을 뒷받침



전북중기청은 '모태펀드 2026년 1차 정기 출자공고'를 통해 2.1조원을 출자해 4.4조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기 위해 지역의 기업, 대학, 은행 등 지역사회, 지방정부와 모태펀드가 함께 조성하는 '지역성장펀드'에 역대 최대 2300억원을 출자한다.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4개 내외 지역에 모펀드 4000억원, 자펀드 7000억원 이상을 조성해, 5년간('26~'30) 3.5조원 이상의 자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구주 매입에 대한 주목적 투자 인정 특례(최대 20%)가 이번 공고에도 적용돼 회수시장 활성화를 꾸준히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 운용사들의 정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벤처캐피탈 자율규제 프로그램 우수 운용사, 올해의 팀스 운영사

등도 우대 선정한다. 이번 공고에 대한 출자 분야의 제안서는 2월 19일부터 2월 26일 14:00까지 온라인(http://install.kvic.or.kr)으로 접수하며, 공고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2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개최한다.

1차 심의(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와 2차 심의(운용사 제안서 PT)를 거쳐 4월 중에 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우주항공,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9개 부처 및 일부 분야는 2월 이후 순차적으로 공고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 전북농협, 원예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 워킹그룹 회의 개최

전북농협(본부장 김성훈)은 지난 22일 전북 원예농산물 수출촉진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마케팅팀, 농협·조공법인 수출 실무자, 수출업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2025년 전북 농산물 수출실적과 '2025년 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 방향과 품목별 해외시장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전북농협은 지난해 수출 유망품종 지원, 수출농가 현장컨설팅, 수출농가 조직화 교육, 해외 판촉행사 지원 등을 통해 전북 농산물의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 구축했다. 특히, 전북의 5대 수출 전략품목인

배, 포도, 딸기, 복숭아, 고구마 중심으로 8개국에서 16회의 해외 판촉행사를 추진하며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참석자들은 무주 여름딸기 수출성과와 사례를 공유한 뒤, 주요시장의 동향을 점검하며 국가별 수출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 수출 관련 지원사업을 체계화·실용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 강화와 시장 다변화를 통한 전북 농산물 수출 확대 전략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김성훈 본부장은 "수출을 통한 농산물 판로 다변화는 필수과제이며 급변하는 기후환경과 해외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 맞춤형 수출지원사업을 발굴해 전북 농산물이 해외시장에서 인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상의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추진

### 기업·청년에 최대 720만원 지급

전주상공회의소가 오늘부터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기업에게 최대 720만원과 청년에게는 최대 480~720만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과 조건도 복잡하지 않다. 청년은 만 15~34세이며,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가입 사업장으로,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은 이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에서 제외된다.

전주상의 관계자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은 지역의 청년들이 매년 8천여명 이상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등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사업 참여기업과 청년 부담 경감을 위해 채용부터 지원금신청,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상공회의소 산업진흥팀에 문의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 전북도자립지원전담기관 '주거생활 물품' 전달식 개최

### 자립준비청년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관장 유기용)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주거생활 물품 전달식을 지난 23일 진행했다.

전달식은 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진행됐다.

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유기용 관장,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정필현 관장, (사)한국이동청소년그룹협의회 임정미 회장 외 도내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들의 따뜻한 동행에 있어서 앞장서고 있는 직원 7명이 참석했다.

이번 전달식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를 앞두고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보호아동들과 자립을 시작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

성을 위한 전달식으로 '필립스 로봇청소기' 20대를 각 기관에 10대씩 전달했다.

유기용 관내이비서 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장은 "자립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여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은 '아동복지법'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에 의거해 2022년 3월 개소해 운영되고 있다.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약하여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멘토링 지원 △맞춤형 취업 지원 △매입임대주택 지원 등 다양한 자립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정소민 기자

## 전북도, 수박산업 경쟁력 강화 세미나 성료

### 건강한 토양관리 통한 수박산업 발전 도모

전북특별자치도 수박연구회(회장 이만수)는 농업기술원(원장 최준원)의 후원으로 그동안 연작으로 관리가 어려웠던 수박재배 토양관리와 영양관리에 대한 세미나를 지난 22일 고창군 대산면에 소재한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수박시험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정소라 농촌지도사가 '토양 진단으로 높이는 비료효율'이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도내 수박재배농가 6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토론이 함께 이루어졌다. 세미나를 참석한 농가들은 수박재배지의 정확한 토양진단과 이에 맞는 토양관리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며 앞으로 작물재배의 출발점이 되는 토양관리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전북수박연구회 이만수 회장은 "앞으로 전국 최고의 명품수박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농가의 현장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세미나를 매년 발굴·개최하겠다"고 말하며 "전북 수박산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수박연구회는 농업기술원의 후원으로 그동안 연작으로 관리가 어려웠던 수박재배지 토양관리와 영양관리에 대한 세미나를 지난 22일 개최했다.

## 현장 중심 농업 현안 해결 "신기술 보급·확산 속도"

###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신기술시험사업 설명회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은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20여 개 시범사업장에서 '2026년 기반기술분야 신기술시험사업 현장설명회'를 연다.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업과학기술로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표로 전국 297개소 농업 현장에서 4개 분야 25개 신기술시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농업환경·농업생물·농업공학·농촌자원 분야로 분류되는 최신 농업 신기술의 시험보급 방안과 빠른 현장 확산과 보급을 위한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설명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병방제 기술 △공중 활용 농업기술 △농작업 기계의 지능화·로봇화 △정서적 농촌환경자원 치유 프로그램 등 중점영역별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실용적인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과수화상병 방제 기술, 꿀벌 대

체 화분매개 기술, 봄·여름 배추 저장 기간 연장 기술[시에이(CA) 저장고] 등 8개 기술 설명회는 설 연휴 이전에 추진해 영농 일정에 맞춰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기술시험사업 추진 지자체 담당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 심층토의, 현장 적용 기술 실물 연시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데이터 수집·관리와 운영, 현장 기술지도 방안, 실시업체의 기술 역

량 검토 방안 등 올해 신기술시험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실무 방안도 논의한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박수선 과장은 "농업 현안 해결을 지원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신기술 시험사업을 추진해 연구 성과를 신속히 현장에 보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스마트 데이터 농업 신기술에 대한 농업인 인식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북은행 박춘원 은행장, 취임 후 첫 소통

JB금융그룹 전북은행 박춘원 은행장이 최근 임직원들과 직접 만나 '직원과의 소통의 시간'을 갖고 전북은행의 미래 방향과 직원 개개인의 성장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은행장은 JB우리캐피탈 대표 시절 경영 성과 및 조직운영 방안 등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취임 후 직원들과 첫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박 은행장은 "제 인생은 성장의 연속 이라기 보다 변화의 연속이었다"고 말하고, 끊임없는 변화를 가능하게 한 핵심 요인으로 모험심, 호기심, 사랑, 열정 등을 꼽았다. 공대 진학, 회계사, 정당 활동, 유학, 컨설팅, 금융그룹 경영 등 다양한 이력을 언급하며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리스크를 감수하려

는 모험심 때문"이라며 "조직과 사회에 대한 애정, 그리고 공부와 일에 대한 열정이 변화의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직원들의 질문에 박 은행장은 허심탄회하게 답변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은행의 현재 위치에 대한 질문에는 "외국인 금융, 중도금 대출, 브라보코리아, 디지털 분야 등 쉽지 않은 영역을 선도적으로 개척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러 시도에 비해 아직 충분한 열매를 맺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앞으로는 도전을 성과로 연결시키는 시스템과 세부전략의 완성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 전북대학교, 5년제 건축학 과정 부활한다

## 오는 2027년부터 운영 실무 전문건축 인재 양성 시행

전북대학교 건축공학부 건축학 전공 교육과정이 오는 2027년부터 운영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은 건축사 양성 위한 2027년 건축학 체계 운영 계획을 밝혔다. 이에 전북대학교는 건축전문인재 배출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북대학교 건축학부는 건축공학 전공(현행 그대로 4년)과 신설 건축학 전공(5년)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과거 전북대 건축 분야 학과는 과거 건축공학과(4년제)와 건축학과(5년제)로 운영됐다. 2010년 건축학과가 건축공학과로 통

합되면서 5년제 과정이 폐지된 바 있다. 이후 전북대는 건축사 시험 응시자격 교육과정 부재 상황이 이어져 왔다. 그간 전북대학교는 지역 건축 전문 인력 양성과 건축 교육 기반 약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는 해당 과정이 없어 학생들이 학내에서 건축사 자격 요건을 갖추기 어려웠던 구조였다”고 밝혔다. 관련한 등록금 및 세부내용은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초 발표될 예정이다. 정원 조정안에는 건축공학과 정원 50명에 대해 ‘건축공학 전공 35명’, ‘건축학 전공 15명’ 내용이 담겨있다. 전북대는 관련 학사 운영 준비를 거쳐 2027학년도부터 5년제 건축학 과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23일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은 건축사 양성 위한 2027년 건축학 체계 운영 계획을 밝혔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하는 실무형 건축인재 양성에 더욱 힘이 학내에서 전문 역량을 갖춘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지역 사회가 필요로

/김영태 기자

## ‘AI와 함께 자라는 아이들’ 국제 콘퍼런스 개최

내달 11~12일 유튜브 생중계

전북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원장 김정기)은 다음달 11~12일 양일간 ‘AI와 함께 자라는 아이들’ 온라인 국제 콘퍼런스 개최 예정이다.

콘퍼런스는 미래교육연구원 주최, 전북인공지능고등학교가 주관한다. 콘퍼런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외 교육전문가와 함께하는 AI 디지털 교육의 미래’ 주제로 AI 기술 환경 속에서 아동·청소년이 갖춰야 할 핵심 역량 등이다.

특히 미래교육연구원과 전북인공지능 고밀한 협업을 통한 전문성을 높였다.

또 글로벌 기업인 및 국내외 저명 학자들이 참여해 세계적인 AI 디지털 교육 정책과 트렌드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은 동계 교원 에듀테크(AI·디지털) 직무 연수를 통해 도내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도 한층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직무연수는 줌을 통한 온라인 연수로 운영되며,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직무연수를 희망하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은 오늘부터 2월 3일까지 전북교육연수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정기 원장은 “에듀테크 활용 등 미래 교육에 관심있는 교육가족과 도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북교육청 ‘늘봄지원실장 역량강화 연수’

###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 목표 늘봄교육 체계구축 핵심

전북교육청은 지난 23일 ‘1월 늘봄지원실장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해 늘봄 운영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연수는 △2026 늘봄 정책 및 운영 방향 이해 △3월 학생 안전관리 및 생활지

도 방안 △지역 연계 협의체 운영 방안 △3학년 프로그램 이용권 △2026 늘봄학교 길라잡이 안내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전북형 늘봄학교는 초·중·고등학교 공백 해소와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학교 안과 학교 밖을 연계한 통합 돌봄·교육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이번 연수를 통해 임기제 교육연구사인

늘봄지원실장 100명과 2026년 신규임용 늘봄지원실장 54명을 대상으로 학교 늘봄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올해부터는 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초·중·고 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간 50만원)이 새롭게 도입한다. 특히 이용권은 학교 안 선택형(교육) 프로그램 수강료와 교재·재료비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늘봄학교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늘봄지원실장은 학교 늘봄 운영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인력”이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올해 전북 늘봄학교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학교 늘봄을 이끄는 전문 인력으로서의 역량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북교육청, 신규 감사담당공무원 청렴 감사행정 추진

전북교육청은 지난 23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신규 감사담당공무원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연수는 감사업무를 처음 담당하는 신규 감사담당공무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며 기존 감사인력 전문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감사담당공무원 윤리강령과 감사업무의 이해 △확인서 및 감사보고서 작성법 △교무·학사 및 회계 분야 주요 감사 사례 △공공감사시스템 사용법 등으

로 구성됐다. 이홍열 감사관이 윤리강령과 감사업무 전반을 직접 강의하고, 이어 감사인력 박진철 수석감사관의 확인서 및 감사보고서 작성법 특강이 진행됐다.

또 교무학사·회계 분야는 실제 감사업무 담당자가 현장 사례 중심으로 강의의 진행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이홍열 감사관은 “예방감사와 현장 지원 중심의 감사업무를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김제교육지원청, 김제-EBS 자기주도학습센터 개소

### 다양한 공교육 콘텐츠 제공 도시지역 교육 격차 해소

전북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윤범)은 지난해 교육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김제-EBS 자기주도학습센터 개소식을 지난 23일 김제 창의·예술 미래공간 ‘다움’에서 진행했다.

김제-EBS 자기주도학습센터는 EBS를 통해 다양한 공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며 맞춤형 학습을 지원·관리한다.

자기주도학습 공간 및 인프라를 지원해 사교육없는 자기주도적 학습 모델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EBS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센터장 1명, 학습코디네이터 1명, 행정지원인력 1명이 배치해 학생 개별 진단검사, 출결 및

학습관리, 학습플래닝 지도, EBS ‘단추’ 통한 AI 학습진단, 개념/심화학습, EBS 강의 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고,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제 지역 각 학교에서 신청한 중학교 2·3학년과 2026학년도 1학년 신입생 25명 내외를 선발하고, 운영 방안 등은 향후 학생/학부모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김제교육지원청은 EBS의 지원과 별도로 관내 학습코칭 전문가와 학생들을 연결해 1:1로 학습코칭 상담도 진행하며 자체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윤범 교육장은 “2026학년도에는 중학교 진로·진학 지원도 강화해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기반의 공교육 제



전북김제교육지원청은 지난해 교육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김제-EBS 자기주도학습센터 개소식을 지난 23일 김제 창의·예술 미래공간 ‘다움’에서 진행했다.

공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북교육청,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이해 교육 실시

전북교육청은 지난 23일 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2026년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운영 계획에 따른 것으로 사립유치원 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지원청의 현장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회계시스템 운영 이해 △교육비(유아학비, 무상교육비, 학급운영비) 집

행 및 관리 △인건비(교원초우개선비, 방과후강사지원금, 행정직 인건비) 집행 기준과 유의사항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교육을 통해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재정업무 이해도가 제고돼 사립유치원 회계 업무의 신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현장 중심 맞춤형 재정 업무 지원과 지속적인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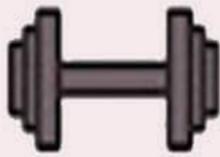
# 겨울철 야외 활동시 안전수칙



기상청, 날씨 앱 등으로 사전에 기상정보 파악 하기



얇은 옷 여러벌을 겹쳐 입어 체온을 유지하고, 보호 합니다



활동전 준비운동을 통해 몸을 움직이고 근육이완을 합니다



따뜻한 물을 충분히 섭취 합니다



핫팩을 가지고 다닌다.

### 익산시, 내달 13일까지 시민 건강관리교실 참여자 모집

익산시가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맞춤형 건강관리교실을 운영한다.

시는 보건소에서 2월 19일부터 5월 15일까지 '성인 비만 적정체중관리교실'과 '시니어 체력 증진교실'을 운영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연령과 건강 상태에 맞춘 체계적인 운동 지도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모집 인원은 과중별 20명으로, 오늘부터 2월 13일까지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성인 비만 적정체중관리교실은 1962~2007년생 성인 가운데 여성은 체질량지수(BMI) 25 이상, 남성은 BMI 30 이상 또는 대사증후군 대상자를 모집한다. 주 5회 운동처방에 따른 운동지도와 함께 한방 건강관리 지도가 병행된다.

시니어 체력 증진교실은 1946~1961년생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주 4회 맞춤형 운동지도도를 통해 근력과 균형 능력 향상 등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 개정면 (유)진흥물류 착한가게 가입·현판 전달

군산시 개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채운석·공공위원장 황은호)는 개정면 신규 착한가게 (유)진흥물류(대표 박지희)에 현판을 전달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가입한 (유)진흥물류는 용달 화물부터 개별화물, 일반화물, 특수화물까지 취급하는 화물운송 업체로 신속·정확·안전하게 고객의 제품을 정성껏 운송하고 있다.

현판을 전달받은 박지희 대표는 "주변을 돌아보면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다. 작은 실천이지만 정기적인 나눔으로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어 착한가게에 가입하게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개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채운석 민간위원장은 "소중한 기부금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황은호 개정면장도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착한가게에 동참해 주신 (유)진흥물류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라며 "착한가게로 모은 기부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내 나눔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군산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콘서트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성료

군산시립교향악단의 제165회 정기연주회 콘서트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가 지난 22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이번 공연은 이명근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주요 장면과 아리아를 중심으로 구성된 콘서트 오페라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복잡한 무대 장치 없이 음악과 노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 관객들은 작품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며 아름다운 순애보와 음악을 즐겼다.

또한 소프라노 구은경, 테너 강훈, 바리톤 허준은 각 인물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군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와 조화를 이뤘다.

여기에 해설자 허철의 감성적인 해설은 오페라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도 부담 없이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화려한 출연진 덕에 평일 저녁임에도 공연장 객석이 고르게 채워져 높은 관심을 반영했으며, 공연이 끝난 뒤에는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공연의 감동과 여운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예술의전당 심종만 과장은 "콘서트 오페라 형식을 통해 오페라의 문턱을 낮춰 시민들이 작품을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관객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시,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재정비'

### 정치적 불안감과도한 규제 등 민간 투자 저해 요인 분석해 대응책 마련

익산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전략적 재정비에 들어간다. 시는 사업의 투자 매력을 극대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대외 여건이 개선되는 올 하반기 이후 사업자 선정 절차를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23일 익산시에 따르면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지난해 10월 공고를 시작으로 사업자 선정 절차를 본

격화했다.

11월 당시만 해도 2개 업체가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며 활기를 띠었으나, 지난 22일 최종 마감 결과 신청서 접수 업체는 없었다.

시는 일부 정치권의 반대 여론과 시의회 관련 예산 삭감 등의 정치적 상황이 기업에게는 거대한 심리적 장벽이 됐다고 분석했다.

4,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는 사업이 단체장 교체나 정책 기조 변화 시 표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대외 신뢰도를 저하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과도한 제도적 규제 역시 민간의 투자 유인을 떨어뜨렸다. 도시개발법상 10%로 제한된 이윤율과 공공

기관 이전 대비를 위해 요구했던 대규모 공공기여(기부채납 8만 6,000㎡) 등은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축 경영 중인 건설사들에게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됐다.

시는 이러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공모 시기를 건설경기 회복세 전환과 선거 국면이 마무리되는 올 하반기 이후로 조정해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여(기부채납) 면적을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개발이익 보전 등 민간 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사업 구조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갱신'

### 유니세프 인정 최고단계 현판 제막식 개최

군산시가 지난 23일 시청 1층 현관에서 유니세프가 인정하는 아동친화도시 최고단계인 '상위단계 인증갱신'을 기념하는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막식은 군산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꾸준히 조성해 온 노력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향후 추진 의지를 대내외에 선언하

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 김영민 부시장을 비롯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등이 참석했으며, 군산시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로 나아가고 있음을 함께 축하했다.

군산시는 2016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2021년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번 재인증을 통해 아동친화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인정 받았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애육원, 복합 놀이 공간 '드림플레이스' 개소

### 아동 의견 적극 반영 VR·노래방 등 갖춰

정읍애육원이 지난 23일 입소 아동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VR 기기와 코인 노래방 등을 갖춘 복합 실내놀이 공간 '드림플레이스(Dream Place)'의 문을 열었다.

이날 정읍애육원 2층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이학수 정읍시장을 비롯해 윤준병 국회의원, 임승식·염영선 도의원, 시의원 등 지역 주요 내빈과,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정태영 총장, HD현대 류근찬 부사장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드림플레이스'는 약 105㎡(32평) 규모로 조성된 아동 전용 복합 실내놀이

공간이다. 내부에는 아이들이 선호하는 코인노래방, 오락 놀이 기기, VR(가상 현실) 체험 기기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설계 단계부터 시설을 실제로 이용할 입소 아동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반영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사업은 국제 아동 권리 NGO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가 주관하고, HD현대1%나눔재단의 후원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의 공사 기간을 거쳤으며, 총사업비는 1억 8000만원이 투입됐다.

행사는 정읍애육원 가족학창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소개 및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공식 행사 이후 참석자들은 조성된 놀이 공간을 둘러보고

아동들과 함께 기구를 체험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학수 시장은 축사를 통해 "드림플레이스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터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읍시는 아동들의 권리 증진과 행복한 성장을 위해 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원중 정읍애육원장은 "그동안 시설 부지가 협소해 아이들에게 마음껏 뛰어놀 실외 놀이터를 마련해주시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었다"며 "이번에 아이들에게 선물 같은 공간이 생겨 기쁘고,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즐거움과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정읍시 '공공일자리 사업' 본격 가동

참여자 13명 추가 모집

정읍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고용 활성화를 위해 2026년 공공일자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시는 지난 5일부터 '상생일자리 사업'을 통해 130명의 시민을 선발, 관내 95개 사업장에 배치해 운영 중이다. 오는 4월 30일까지 80대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참여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시는 더 많은 시민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상생

일자리 사업 참여자 13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시립미술관 내·외부 환경 정비 등 9개 사업이며, 신청 기간은 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이다. 선발된 인원은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48일간 근무하게 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공공일자리 사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읍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시, 농생명사업 '기술개발·기업 육성' 본격화

'전북연구개발특구'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장착한 익산시가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 사격에 나선다.

익산시는 27일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특구 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2026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익산시가 특구의 '농생명융합사업화지구'로 신규 지정된 후 열리는 첫 공식 행사다. 특구에 대한 기대감을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시가 연구개발특구에 편입됐다는 것은 앞으로 익산의 기업들이 국가 차원의 전문적인 기술 개발 지원과 파격적인 혜택을 받게 됨을 의미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 수요가 가장 높은 △전략기술 연구성과의 사업화 자금 지원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 △신기술 개발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규제 샌드박스' 활용법 등이 상세히 안내된다.

특히 설명회 직후 현장에서 운영되는 '1:1 맞춤형 상담 테이블'은 기업들이 사업 신청 과정에서 겪는 막막함을 즉에서 해결해 주는 밀착형 행정의 정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기업은 연구



소기업·첨단기술기업 지정을 통해 법인세·소득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곧 지역 내 우수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시는 앞으로도 특구 육성 사업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산·학·연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며 익산에 대한민국 농생명 융합 기술의 메카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특구 사업을 적극 활용

/익산=최준호 기자

### 익산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복지 체감 ↑

익산시가 시민이 필요한 복지를 직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로 생활 속 복지 체감을 높인다.

익산시는 올부터 2월 9일까지 '2026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이용하는 수요자 중심 복지사업이다. 바우처 카드를 활용해 복지 서비스 접근성과 선택권을 높였다.

모집 인원은 12개 사업 총 1,239명으

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의사 진단서나 추천서 등 서비스별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요 사업은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아동정서발달지원 △영유아발달지원 △청소년 재활승마지원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 △장애인 보조기기렌탈 등이다.

사업별로 연령과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 필요도 등 신청 요건이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환경오염 '철통 방어' 578개소 점검

정읍시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578곳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연휴 기간 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시는 대기, 폐수,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 관련 법령 준수 여부와 관리 실태 전반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스래기 및 폐수 배

출 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비산먼지 억제 조치 이행 실태 등이다.

특히 시는 설 연휴 전후인 2월 9일부터 24일까지를 '환경오염 특별감시 기간'으로 정하고 환경오염 사고 대비 상황실을 설치·운영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한다. 아울러 산업단지과 주변 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불법 배출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시였다. 이는 겨울철 관광 수요 감소라는 구조적 한계를 유류 시설 활용으로 풀이한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프로그램 또한 단순 방문이 아닌 깊이 있는 체험 위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장금이파크에서 김밥과 향낭을 만들고 지역 딸기 농장에서 수확 체험과 케이크 만들기를 진행하며 정읍의 겨울 농촌을 만끽했다. 또한, 총렬사 탐방을 통해 지

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학수 시장은 "겨울철 비어 있던 유류 공공시설을 활용해 정읍만의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낸 것이 이번 캠프의 가장 큰 성과"라며 "글로벌 청년들이 직접 경험한 정읍의 매력이 참신한 콘텐츠로 확산돼 사회적 내내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김제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본격 추진

## 오늘부터 창업·시설 개선·위기극복 등 6개 사업 신청·접수

김제시는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맞춤형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창업부터 성장, 위기 극복까지 총 10개 사업으로 구성된 3단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 가운데 창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빈 점포 창업지원 김제애(愛)마켓, 생애 첫 창업 지원금, 소상공인 시설 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 소상공인 위기 극복 사업, 1인 점포 안심벨

지원사업 등 6개 지원사업에 대해 오는 오늘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6일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와 신청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설명회에는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 등 24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창업지원 사업은 김제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경영환경 개선 및 임차료 지원 및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며, △빈 점포 창업지원 김제애(愛)마켓은 구도심 내 빈 점포에 창업을 지원한다.

△생애 첫 창업 지원금은 생애 첫 창업한 지 3년 미만 초기 창업자들에게 3백

만원의 창업 지원금을 지원하며, △시설 개선·경영지원 사업은 노후 점포 환경 개선과 경영 장비 구입 및 비품 교체를 지원한다. △위기 극복 지원사업은 화재나 재해로 정상 영업을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 복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1인 점포 안심벨 지원사업은 1인 점포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벨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국내외 경기 불안과 소비침체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2026년에는 창업부터 위기 극복까지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모세혈관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활력 회복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 부안군,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 중위소득 250% 이하 가정까지 70% 지원

부안군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을 70%로 확대하고 2026년 신규 채용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1차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70%지원 확대를 통해 가정의 돌봄비용 부담을 대폭 낮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활성화와 양육공백 해소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26년부터는 정부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부지원 대상이 확대돼, 더 많은 가정이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더불어, 부안군은 지난 22일 온가족센터에서 2026년 신규채용 아이돌보미 36명을 대상으로 1차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규 아이돌보미의 현

장 적응을 지원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방향과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돌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사항과 직무 스트레스 완화,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아이돌보미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부안군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가 안심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와 함께 신규 아이돌보미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교육을 통해 신뢰받는 아이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제6회 고창신재효문학상 공모전 접수

## 오는 8월까지...당선작 상금 5천만원 지급

제6회 고창신재효문학상 공모전이 오는 8월까지 접수 받는다.

주제는 고창의 역사·자연·지리·인물·문화 등을 소재나 배경으로 하는 작품으로, 판소리 관련 작품이 아니어도 무방하며 당선작에 대해서는 50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고창신재효문학상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유구한 역사문화가 가득한 고창의 이야기를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담은 장편소설 공모전으로, 올해 제6회를 맞았을 때 그간 5장의 수상작을 배출해냈다.

제1회는 김해숙 작가의 ‘금과’, 제2회는 박이선 작가의 ‘엄부’, 제3회는 이준호 작가의 ‘조선사람 히라야마 히데오’, 제4회는 이수정 작가의 ‘단역배우 김순효씨’, 제5회는 이강원 작가의 ‘따오기의 아침(가칭)’이 선정됐다.

5회 수상작인 ‘따오기의 아침(가칭)’은 오는 2월에 출간 예정이며 3월에 시상식과 출판기념회도 열릴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신재효문학상의 명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제6회 공모전에도 많은 문학인들이 도전해 좋은 작품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6회 고창신재효문학상 공모전은 8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접수



받으며, 당선작은 10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군의의회, 제368회 임시회 폐회

## 주요 정책·사업 점검 총 5건 조례안 등 의결

부안군의의회(의장 박병래)는 지난 23일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68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관·과·소로부터 2026년도 상반기 주요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서별 주요 사업 추진계획과 현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올해 추진되는 주요 정책과 사업 전반을 점검했으며, 총 5건의 조례안 등을 의결하며 군정 운영과 주민 생활 전반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부안군의의회는 이날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매립 폐기물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특별위원회는 박태수 위원장을 포함



한 6명으로 구성됐으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으로, 부안읍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와 관련한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환경 영향과 행정 절차의 적정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상반기 구정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살펴보는 자리였다”며 “사업의 취

지와 목표도 중요하지만 추진 과정이 충분히 검토되고 행정 절차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이번에 구성되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기된 우려들을 점검하고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 부안군, 희망소통대화 본격 추진

내달 5일까지 13개 읍면 순회

부안군이 2026년 군정 운영방향을 군민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결실창래(結實蒼來), 2026년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희망소통대화는 2026년 군정 슬로건인 ‘결실창래(結實蒼來)’의 의미를 군민과 함께 나누고,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의 성과를 군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군정 주요 방향을 직접 설명·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안군은 이번 소통대화를 통해 부안 대도약을 위한 3대 추진전략인 △부안형 바람업권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부안 철도시대(T자형 철도망 구축) 등을 중심으로 향후 군정 운영 비전과 중점과제를 군민과 함께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희망소통대화는 오늘 부안읍을 시작으로, 27일 주산면·동진면, 28일 행안면·졸포면, 29일 계

하면·변산면, 2월 2일 백산면, 3일 상서면·하서면, 4일 보안면·진서면, 5일 위도면을 차례로 방문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각 읍·면 방문 시에는 사회단체장과 의견을 직접 듣는 시간이 운영된다.

아울러 행사 이후에는 경로당 등 생활 현장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살피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현장을 직접 찾아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는 현장에서 풀어가야 하는 군정의 기본”이라며 “축적해 온 정책과로 사업들이 군민의 삶 속에서 성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집중하고, 부안의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흔들림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주)진하엔지니어링, 김제시에 이웃돕기 성금 2,000만 원 기탁

김제시는 (주)진하엔지니어링(대표 윤은수)이 지난 23일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이웃돕기 성금 2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10년간 기탁을 이어갈 계획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장기적인 나눔 실천을 위해 마련됐다.

윤은수 (주)진하엔지니어링 대표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게 돼 기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장기간에 걸쳐 나눔을 실천하기로 결정한 (주)진하엔지니어링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시는 성금은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 고창문화도시센터, 신년 문화예술 컨퍼런스 열려

문화도시 조성사업...30일 개최

고창문화도시센터가 오는 30일 고창동리국악당에서 관내 문화예술 상생을 위한 ‘신년 문화예술 컨퍼런스 百花齊放(백화제방)’을 개최한다.

컨퍼런스는 고창의 7가지 보물과 다양한 문화예술의 꽃이 함께 피어날 것이라는 의미를 담은 2026년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이다.

행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고창만의 ‘차이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로드맵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은 △타 문화도시 및 지자체 문화예술 기획자의 우수 사례 발표 △고창문화관광재단·고창문화도시센터의 2025년 성과 공유 △고창군 생

활문화 공연 등으로 구성된다.

고창문화도시센터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수렴된 문화예술인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2026년 고창문화관광재단 및 고창문화도시센터 사업 추진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장의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고창만의 견고한 ‘차이 문화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와 지역민이 함께하는 심도 있는 담론 형성을 통해 단순한 학술 행사를 넘어선 전략적 행보에 나선다.

고창이 보유한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광역 단위로 확산시키고, 타 지자체와의 유연한 연대를 통해 문화적 포용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며 관련 문의는 고창문화도시센터로 하면 된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군, 2026년 학교숲 조성사업 협약 체결

부안초·변산중 2개소 대상

부안군은 2026년 학교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안초등학교, 변산중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학교숲 조성사업은 학교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숲과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생태 학습 환경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오는 3월까지 실시계획을 마치고, 상반기 내 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올해 사업에는 총 2억원(도비 50%, 군비 50%)이 투입돼 사업을 추진하며, 현재까지 관내 학교 43개소 중 26개소(초등학교12, 중학교9, 고등학교5)에 숲조성을 완료한 바 있다.

부안군청 산림정책과장은 “학교숲 조성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 및 정서 함양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부안군 녹지공간을 확장해 군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제시, 청소년 전지훈련 대비 식중독 예방 관리 강화

바가지 요금 근절 교육도

김제시는 청소년 동계 전지훈련 기간을 맞아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예방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야구, 배드민턴, 태권도 등 다양한 종목의 청소년 선수단이 김제를 방문해 동계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선수단과 지도자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위생관리로 나서고 있다.

이번 특별 위생 지도·점검은 김제시 위생관리팀과 소비자 식품위생관리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훈련장 주변 다중이용 음식점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가한이 경과한 원료 또는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종사자의 위생마스크 및 위생모 착용 등 개인위생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위생뿐만 아니라 동계 전지훈련 선수단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 요금 근절 교육과 친절 서비스 강화 교육도 함께 실시해 공정한 가격 질서 확립과 쾌적한 외식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

시는 이번 위생관리 및 서비스 개선 노력을 통해 청소년 전지훈련 도시로서의 신뢰도를 높이고, 위생·가격·서비스가 조화를 이루는 외식 환경의 중심지로 이미지를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김제=은봉기 기자

# 김제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총기 안전교육...농작물 피해 예방

김제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방지단을 구성하고 지난 22일 단원을 대상으로 총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6년 피해방지단으로 선발된 김제시 거주 수렵인 33명이 참석했으며, 김제경찰서와 야생생물관리협회 전북지부가 협력해 총기 취급 및 사고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총기 안전 수칙 및 사고 예방 요령 △포획 구역 준수 및 포획물 관리 방법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시료 채취 및 사체 이송 방법 등 포획 활동 전반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주거지 및 시설물 100m 이내 총기 사용 금지와 허가된 포획 구역 내에서의 활동 준수를 강조하며, 총기 사고 사례를 공유해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피해방지단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 고창군, 원예산업발전협의회 개최 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고창군이 지난 22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원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 고창군 원예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원예산업 관련 부서, 지역농협 조합장, 고창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등 통합마케팅 참여조직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5년도 고창군 통합마케팅 사업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2026년 원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과제와 정책 방향을 협의했다.

특히 산지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마케팅 조직 운영 방향과 함께, 국비 공모사업인 스마트 APC사업(농산물산지유통센터,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omplex)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원예산업의 생산·유통 전반에 대한 정책 연계 방안, 품목별 전략적 육성 방향,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이 주요 논의 사항으로 다뤄졌다.

성현섭 고창군 농촌활력과장은 “행정과 생산·유통 주체 간 협력을 통해 고창군 원예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산업부장관 '5극 3특' 첫 현장 행보는 '완주'

김정관 장관 문화선도산단 방문  
입주기업·청년근로자 수요 청취  
군, 피지컬AI·수소특화산단 '속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2일 완주군을 방문해 '문화선도산단' 현장 점검 및 입주기업·청년근로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구상의 첫 현장 행보로 전북지역에서는 완주가 선택돼, 완주군의 산업정책 위상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장관은 이날 문화선도산단 추진 현장을 중심으로 산단 운영 여건과 현장 수요를 확인하고, 기업 관계자 및 청년 근로자들과 만나 산단 경쟁력 강화와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정부의 첫 현장 행보가 완주에서 이뤄진 것은 지역 산업 기반과 성장 가능성을 현장에서 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완주군은 문화선도산단 추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지역의 미래 먹거리와 정주 기반을 함께 키우는 중장기 전략을 병행해 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완주를 방문,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구상의 첫 현장 행보를 문화선도산단 점검으로 선택했다.

갈 방침이다.

우선 완주군 일원에 조성될 '피지컬 에이아이(physical AI) 생태계 조성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조 원 규모로 추진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국비 6,000억 원, 지방비 1,500억 원, 민간 2,500억 원이 결합되는 민·관·학 협력 사업이다.

아울러 완주군은 봉동읍 일원 약 20만 평 규모의 '수소특화 국가산단' 구상과 컨벤션을 포함한 885억 원 규모 문화선도산단 조성(국비 450억, 도비 53억, 군비 382억)을 연계해 산업단지 경

쟁력과 정주 여건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방향을 지속 추진한다.

특히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생활 기반을 위해, 종합병원이 없는 완주군의 현실을 반영한 산재병원과 공공산후조리원 등 필수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군은 이번 산업부 장관 방문을 계기로 미래산업 전략, 의료·돌봄 인프라 확충 과제가 지역 성장과 정주 기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북도, 지역 정치권과 연계해 관련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 완주군시설관리공단, 임기제 26명 공개 채용

마을버스 운전 18명 등 총원  
수상안전·시설관리 7명 선발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이 공영마을버스와 체육시설 등의 운영 안정화를 위해 2026년 제1회 일반인 기제 직원 26명을 공개 채용한다.

이번 채용은 주로 공영마을버스 운전 인력 확충과 체육시설 안전 운영 강화를 위한 것으로 채용인원은 △공영마을버스운전 18명 △수상안전 및 시설관리 7명 △재무 회계 1명이다.

원시접수는 26일부터 29일까지

완주군시설관리공단 채용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서류·면접 전형을 거쳐 2월 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채용과정은 외부 전문기관 위탁 및 블라인드 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며 세부사항은 완주군시설관리공단 채용 전용 홈페이지(wanju2026.ncsplus.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희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채용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공립·섬진강미술관 각각 말·오방색 주제 민화 전시

순창공립미술관이 전통 민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다시 해석한 기획전 '한국의 팝아트 민화, 순창에 오다'를 연다.

전시는 이달 27일부터 3월 8일까지 41일간 순창공립미술관 본관(전 육전골미술관)과 섬진강미술관에서 동시에 열린다.

이번 전시는 두 공간에서 각각 다른 주제로 민화의 매력을 보여준다. 순창공립미술관 본관에서는 새해의 평안과 행복을 빌던 세화의 전통을 깊이 있게 다룬다. 특히 2026년 병오년을 맞아 말의 모습과 복을 부르는 무늬를 현대적으로 다시 표현하여, 옛 사람들의 바람을 오늘날의 예술 언어로 풀어낸다.

섬진강미술관에서는 음악양행 상에서 뿌리를 둔 오방색을 중심으로 민화와 세화의 시각적 아름다움을 살펴본다. 전통 색깔이 지닌 고유한 의미를 현대적인 조형미로 표현하여, 민화의 강한 생명력과 예술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두 미술관을 자연스럽게 연결한 이번 전시는 관람객들이 각각 다른 주제를 보며 하나의 큰 예술적 흐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꾸몄다.

장지명 총괄 디렉터는 "민화는 오랜 세월 우리 삶과 함께해 온 가장 대중적인 그림"이라며 "이번 전시가 세화와 오방색을 통해 민화의 뿌리와 현재를 동시에 만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쉼다. 자세한 내용은 순창공립미술관(063-650-1638-9) 또는 섬진강미술관(063-650-1640)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 남원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각지대 없애 전염 조기 차단

남원시는 지난 22일부터 '2026년 건강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결핵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법정 감염병으로,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가래, 발열, 체중 감소 등이 주요 증상이다. 하지만 고령층의 경우 뚜렷한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조기 진단에 어려움을 겪으며, 저열침에는 단순히 감기나 기관지염으로 오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다.

결핵검진은 경로당, 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등 의료접근성이 낮은 고령자 등에게 결핵검진 기회를 무료로 제공, 결핵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지역사회 내 전파 조기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검진 비용이 전액 무료이며, 기본적으로 이동식 흉부 엑스선(X-ray) 촬영 방식으로 실시간 원격 판독을 통해 신속히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판독 결과 결핵 의심 소견과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가래(객담) 검사 등 추가 정밀 검사를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보건소 건강생활과 감염병관리팀(063-620-5543)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경찰서, 시니어 치안지킴이 업무협약식 체결

완주경찰서는 지난 23일 완주 시니어클럽과 시니어 치안지킴이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시니어 치안지킴이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시니어 치안지킴이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60명이 참여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관내 지역사회 순찰활동, 범죄위험지역 모니터링,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 등으로 범죄 예방과 지역사회 치안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특히 치안 노하우를 가진 퇴직경찰관 등을 우선 선발하여 지역 맞춤형 안전활동을 통해 주민의 체감 안전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호 완주경찰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의 안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대권 완주시니어클럽 관장은 "시니어 일자리 사업 확충에 협조해주시는 서장님께 감사드리며, 시니어들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보건의료원, 주민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배포

대상·내용·신청법 한눈에 정리  
경로당·마을회관 중심 홍보 확대

순창보건의료원은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도 지역주민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를 제작하고,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포스터에는 △노인의료비 지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임산·출산 지원 △예방접종 지원 등 총 30여 개의 다양한 지원사업이 담겼으며, 각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담당부서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 성격별로 항목을 구분하고, 간결하고 명확한 문구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보건의료원은 이번 안내 포스터를 경로당, 마을회관, 보건지소, 진료소 등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간에 부착해 보다 많은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군, 디지털매체 활동가 발대·군정 홍보 본격

블로그·유튜브 등 37명 기자단  
1년간 정책·관광 등 콘텐츠 전파

완주군이 2026년 완주군 디지털매체 활동가 발대식을 갖고 적극적인 군정 홍보에 나선다.

지난 23일 군은 유희태 군수를 비롯한 완주군 블로그 기자, 유튜브 크리에이터, 대학생 SNS서포터즈, 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군청 대회의실에서 '2026 완주군 디지털매체 활동가 발대식'을 가졌다.

군은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디지털매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6 완주군 디지털매체 활동가'는 블로그 기자 18명, 유튜브

크리에이터 6명, 대학생 SNS 서포터즈 13명 등 총 37명으로, 20대부터 70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대의 기자단으로 구성됐다.

기자단은 앞으로 1년간 완주군 공식 블로그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채널 등을 통해 완주군의 정책, 문화, 관광, 일상 등 완주 곳곳의 다양한 이야기와 소식을 다양하고 감각적인 콘텐츠로 전달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디지털매체 활동가 여러분은 군정과 군민을 잇는 가장 가까운 소통 창구"라며 "완주군의 정책과 변화, 일상의 매력을 현장의 눈으로 생생하게 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시, 농산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앞장'

출하 전 잔류농약 분석지원  
연중 본격 운영 안전관리 강화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출하를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분석지원을 연중 운영하며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23~24년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돼 첨단 분석장비 도입과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 안전농산물 출하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출하 전 단계에서 농산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지난해 11월 시작한 시범 운영을 마치고 올해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농업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출하 10일 전까지 안전분석실을 방문해 농산물 시료와 농업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의뢰하면 3~7일 이내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관내 생산 농산물은 연 2회까지 무료로 분석을 지원해 농업인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시는 향후 부처형 농산물 '제로화'를 목표로 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역 내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이 로컬푸드 매장, 학교급식 등에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 남원시, 베트남서 유학생 유치·디지털 교류 확대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홍보  
하노이·하이퐁 학교와 협력 논의

남원시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해 '전북대학교 남원글로벌캠퍼스' 유학생 유치 기반 조성 및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현지 교육기관과의 교류를 추진했다.

이번 방문은 전북대학교 남원글로벌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현지 교육기관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방문 기간동안 남원시는 하노이와 하이퐁 지역의 대학교와 고등학교를 방문해 전북대학교 남원글로벌캠퍼스의 설립 취지와 글로벌커머스와·한국어학과·K-엔터테인먼트학과 등 외국인 유학생 전용 학과를 소개하고, 단기 연수·문화교류체험·동아리 교류 등 정례적 교육·문화교류 프로그램 구축을 협의했다.

특히 22일에는 베트남에서 열린 교육 포럼 '교수·학습 활동에서의 STEM·AI·로보틱스 적용'에 참석해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확대에 나섰다. 이날 포럼에는 베트남 교육 공무원과 교육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STEM·AI·로보틱스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사례와 향후 교육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남원시는 포럼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전북대학교 남원글로벌캠퍼스'에 대한 소개와 함께 국제교류 협력 가능성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남원시는 현지 교육기관과 해커톤, 경진대회 등 국제 대회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나누며 지속 가능한 국제교류 협력 모델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는 향후 행복기숙사 조성 및 도심 내 유휴 공간 활용 등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과 국제교류 인재를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을 기울인다. /남원=정하복 기자

## 순창 실랜드 1만 6천명 찾아...웰니스 관광지 자리매김

2025년 이용객 1만 6614명 집계  
치유교육 102회...4163명 참여

순창군이 운영하는 힐링 연수시설 '실랜드'에 2025년 한 해 동안 약 1만 6,600여 명의 방문객이 방문하며, 전국적인 치유·웰니스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치유와 힐링을 테마로 운영되는 실랜드는 다양한 연수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계인구와 교류인구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2025년 기준으로 실랜드 전체 시설 이용객 수는 발달로와 실카페 이용객을 포함해 총 16,614명에 달했다. 이들은 교육 참여뿐 아니라 단순 방문, 회의 개최, 휴식 공간 이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실랜드를 찾았으며, 공간 활용의 다

변화도 눈에 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총 102회의 프로그램이 운영돼 4,163명이 참여했으며, 서울대학교와 협력해 진행된 치유 연수 프로그램은 평균 97.25점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실제로, 참가자의 대부분이 재방문 의사를 밝혔고, 타인에게 추천하겠다는 응답 또한 99%를 넘어섰다. 교육의 질과 만족도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순창군은 2026년 '전국 제1의 웰니스 관광지'를 목표로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관계인구 및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8개 유형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퇴직 예정 교원을 위한 '인생설계 직무연수', 직장인을 위한



'월-데이 힐링연수', 노년층 대상 '시니어 슈퍼맨', 아동·청소년 대상 '동심놀이', 건강한 식습관 개선을 위한 '건강식 원데이 클래스', 메디푸드 중심의 요리 체험, 중장년층을 위한 '월-에이징 프로그램' 등이 포함돼 있다.

각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연령대와 관심사를 세분화해 1일 체험부터 3박 4일 연수까지 다양하게 운영된다. 순창군민의 경우 교육비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군, 귀농인·재촌인 창업·주택 구입 용자 지원

창업 최대 3억·주택 7500만원  
연 2%...5년 거치 10년 분할

완주군이 오늘부터 오는 2월 6일까지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해당 사업은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용자 사업으로,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 마련 자금은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용자 조건은 연이율 2.0%이며, 5년 거치 10년 원리

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농업창업자금은 농지 구입, 비닐하우스·배설물처리 시설, 농기계 구입, 축사 부지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주택 마련 자금은 대지 구입을 포함한 주택 구입 및 신축·증·개축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65세 이하(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인이다.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만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예비 귀농인이

해당된다.

또한 농촌에 1년 이상 거주한 기존 재촌인도 영농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 연도에 관내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희망 주민은 완주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완주군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290-2471)으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은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2월 말 사업 대상자를 최종 확정·통보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진안군, 2026년 문화기획공연 '신년음악회' 성료

진안군민과 함께하는 2026년 신년음악회가 지난 22일 저녁, 문화의 집 마이홀에서 250여명의 관람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음악회는 새해를 맞아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희망찬 기운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과 대중적인 프로그램이 어우러져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날 무대는 조상의 지휘자가 이끄는 록스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송해진의 해설이 더해져 관객들의 이해를 돕고, 클래식 색소폰 송동건, 소프라노 김나라가 출연해 품격 있는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국공립 진안어린이집 원아들의 합창 무대는 관객들에게 순수한 감동과 미소를 선사하며 공연의 의미를 더했다.

진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안군은 이번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오는 2월 5일 오후 4시 진안문화의집 마이홀에서 상영되는 연극 '우동 한그릇' 등 다양한 기획 공연을 이어가며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번암면, 제11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식 개최

장수군 번암면은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번암면 주민자치위원회 제11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새 출발을 알렸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새롭게 구성된 위원 25명과 고문 5명에 대한 위촉식 수여를 시작으로 임원진 선출과 정기회의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제10기 주민자치위원회를 안정적인 것으로 이끌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해 온 이항숙 위원장이 제11기 위원장으로 재선출돼 연속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이항숙 위원장은 "지난 10기 동안 소통과 화합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위원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번암면의 활기찬 변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책임 있는 위원회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종현 면장은 "지역 사회의 리더로 활동할 제11기 주민자치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행정에서도 주민자치 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군 건설기계협회,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장수군 건설기계연합회(회장 라영호)는 군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성금 기탁은 겨울철 한파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특히 동절기 난방비 부담과 생계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성금을 전달했다.

라영호 회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단체로서 어려운 이웃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장수군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자연재해·농기계사고 등 31개 보장항목 확대 생활 속 안전망 역할 특화

임실군이 운영중인 군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며, 생활 속 필수보험으로 자리잡고 있다.

군에 따르면 임실군은 군민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기위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하고, 이달 16일부터 2027년 1월 15일까지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사고가 곧바로 경제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농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사고이후의 부담을 제도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농기계 사

고등 이상 속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로,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등록외국인 역시 대상에 포함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야생동물 피해보상 등 외에도 올해 추가된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등 총 31종의 보장 항목을 포함하며, 지원금액은 각 항목당 1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이다.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야생동물 피해 사망사고등 11건에 대해 군민안전보험금 2천 3백만원이 지급돼, 사고를 당한 군

민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 시 군청 안전관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거나,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 지방재정공제회 보험사(1577-5939)에 접수하면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심 민 임실군수는 "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며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보장항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취약계층, 교통안전, 농기계 이용 등 생활밀착형 안전교육 또한 강화해 사고예방과 사후보호를 함께 책임지는 안전한 임실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기업당 채용지원금 최대 1천만원 지역상생 선순환구조 형성기대

무주군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무주형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사업은 무주군 내 중소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기업에 채용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2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무주군 소재 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0일까지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일자리팀에 방문하거나 이메일(jiwan2@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기업으로 선정되면 청년 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1백만 원의 채용지원금(최대 10개월)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1개 기업당 1명이며, 우수 기업의 경우는 신청 현황에 따라 최대 2명까지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채용되는 청년은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미취업자여



무주군 일자리 한마당

야 하며, 무주군 이외의 지역 거주 청년이라도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무주군으로 전입할 경우는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공고는 무주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무주군 인구활력과 일자리팀(063-320-2061)으로 하면 된다.

김현정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일자리

팀장은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는 인력난과 경연년을 겪는 지역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기반으로 무주에 정착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발굴·추진해 '살고 싶은 무주'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접수

오는 2월 6일까지 접수

임실군은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완화하고 영농 집중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2026년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월 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마을회관 등 공동급식시설을 갖추고 20인 이상 농업인의 급식 수요가 있는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에는 총 29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개소당 320만 원의 필요 경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농촌 공동체의 유대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은 2월 6일까지 마을 대표자가 해당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마을에 대해서는 서면 심사와 위원회 심의

를 거쳐 최종 사업 마을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단순한 급식 지원을 넘어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영농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농업인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제22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 시동

3월 14일~15일 운일암반일암 일원

진안군은 오는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주천면 운일암반일암 일원에서 '제22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3일 주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남귀현 축제위원장 및 군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위원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사전 준비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22회를 맞는 축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세부 실행 계획을 검토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올해 축제는 운장산 고로쇠 수액의

우수한 품질을 대내외에 알리는 것을 기반으로 '생태건강지유도시' 진안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콘텐츠 강화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축제위원회는 이번 총회에서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핵심 방향을 설정하고, 단순한 관람을 넘어 모두가 함께 호흡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의견을 모았다.

먼저, 전통 방식의 고로쇠 채취 과정을 생생하게 재현함과 동시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웰니스 체험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부스를 내실 있게 운영해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

는 '상생 축제'로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운일암반일암의 수려한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진안만의 특색을 담은 먹거리 장터를 마련해 축제의 현장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남귀현 축제위원장은 "이번 총회에서 수립된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축제를 준비하겠다"며 "관광객들에게는 진안고원에서의 특별한 추억을, 지역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소득과 보람으로 이어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2026년 농업인 월급제 신청

농협과 출하 약정한 금액 60% 4월~9월 6개월간 분할 지급

무주군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무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비수확기에 필

요한 자금을 농협과 출하 약정한 금액의 60%를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분할 지급하는 정책으로,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며 지역농협 등과 농산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 주소지 농협에서 접수한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정책 한눈에

생활 밀착 정책 본격 시행

진안군은 2026년을 맞아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제도와 정책을 정리해 공개하고, 달라지는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2026년 신규 시행되거나 확대·개선되는 제도는 농업·축산, 보건·복지, 경제·생활, 교통·안전 등 전 분야에 걸쳐 있으며, 농업 경쟁력 강화와 취약계층 보호, 군민 생활안정 확충에 정책의 무게를 두고 추진된다.

농업 분야에서는 고품질(내병계) 고추종자 보급사업을 신규 도입해 병해에 강한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고, 수확기 지원사업을 추진해 신규 및 확대 재배 농가의 초기 영농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농업인 영농정책 지원과 농어촌 소득지원금 확대 병행으로 농가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에 나선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제도를 새롭게 시행해 원거리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은 대상 연령 확대와 신청 절차 개선을 통해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급, 아이돌봄서비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등 기존 복지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된다.

이와 함께 2026년 개편되는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 홍보와 더불어 용담호 사천문화관, 우하 들라날락 화합센터, 성수·용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도 순차적으로 개관·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진안군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진안군,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정책'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장수지구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장수지구협의회(회장 김숙자)는 지난 22일 장수군 여성청소년문화센터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장수지구협의회 임원과 봉사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낭독과 봉사원 서약을 시작으로 기념사, 우수 봉사원 표창 및 격려금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봉사 현장에서의 사명감을 되새기며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의 자세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 결산 보고와 주요 봉사활동 실적을 공유하고, 2026년도에도 지역사회를 위

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봉사원들은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숙자 회장은 "한 해 동안 지역을 위해 헌신해 주신 봉사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적 가치에 기반해 장수군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봉사를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희선 군수는 "앞으로도 행정과 봉사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해 군민에게 더욱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찾아가는 이동건강검진 실시

임실군보건소의료원이 지난 15일 관촌면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12일간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 찾아가는 이동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검진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1차 건강검진 항목은 진찰 및 상담, 신체 측정(신장,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 청력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구강 검사 등이다.

이동건강검진 시 국가 암(위암, 자궁암, 유방암, 대장암 등)검진은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협진을 통해 군민들이 각종 질환을 조기 발견 목적으로 추진

중이다. 검진은 무료로 실시되며 검진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이동검진 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검진 전날부터 8시간 공복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동검진 기간을 놓치더라도 전국 검진 기관에서 연중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김대곤 보건소의료원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찾아가는 이동건강검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목재문화체험장 위탁·운영업체, 장학금 200만원 기탁

무주목재문화체험장 위탁운영 업체인 티아트 주식회사가 지난 23일 (재) 무주군교육발전 장학재단에 장학금 2백만 원을 기탁했다. 김승범 대표는 "무주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을 통해 무주군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보람과 기쁨이 크다"라며 "응원의 뜻을 담은 장학금이 무주지역 아이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꿈을 키우는데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티아트 주식회사는 무주군 향로산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무주목재문화체험장을 무주군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무주목재문화체험장은 2023년도에 개장했으며, 지상 2층 규모에 목공예체험장을 비롯해 상상놀이터, 전시시설, 휴식 공간 등이 마련돼 있다. 올해 1월에는 산림청에서 주최하고 목재문화진흥회에서 주관한 '2025년 우수 목재문화체험장 선정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무주=최희호 기자

## 마음사랑병원 송봉용 원장 3년간 원생 진료 봉사 이어

“철창 안의 상처, 사랑의 인술로 치유하다”

따뜻한 온기를 3년 동안 채워온 한 의사의 헌신은 조용한 울림을 주고 있다. 전주소년원은 지난 3년간 소년원생 위한 정신건강 진료 봉사를 이어 온 마음사랑병원 송봉용 원장(75세)에게 전 직원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송 원장은 지난 2023년부터 매월 2회 전주소년원을 찾아 연인원 기준 540명 대상으로 '분노조절장애', '충동성', '우울감' 등 정신과 진료와 상담을 진행해왔다. 처음 소년원에 있는 진료실에 들어섰을 때, 소년들의 마음은 철창보다 더 단단히 닫혀 있었다. 질문에는 침묵으로 답했고,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다. 송 원장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드는지" 질문하며 원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끝까지 소년들의 마음을 기다렸다. 그 변화는 서서히 분명하게 나타

났다. 송 원장의 오랜기간 진료 이후 총동적 행동과 공격성으로 인한 원내 돌발 사건이 이전 대비 감소했으며, 상담을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소년도 늘었다.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던 소년들이 분노 대신 불안과 두려움을 말하기 시작했으며 "나중에 어떻게 살고 싶다"란 이야기를 꺼내는 등 소통 비율도 증가했다. 특히 미래에 대한 비관적 태도가 줄고, 진료·자립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언급하는 소년들이 증가하는 등 정서적 회복이 확인됐다. 송 원장은 "진료를 거듭할수록 소년들이 조금씩 안정을 찾고 '이제는 잘살아 보고 싶다'고 말할 때가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이어 "치료를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힘을 회복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진료를 받았던 한 원생은 "처음으로 내 잘못보다는 내 이름을 만



송봉용 원장 기증 모습

져 물어봐 준 어른이었다"며 "원장님을 만나고 나서야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 송 원장은 다음 달을 끝으로 3년간의 의료 봉사를 마감하고 다시 본래의 진료 현장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그러나 철창 안에서 시작된 그의 3년은 이미 소년들의 삶 속에 남아, 쉽게 지워지지 않을 흔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전주소년원은 비행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전문적 정신건강 지원이 행동 변화와 재비행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사례라고 평가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민관 협력을 통해 보호소년의 심리 회복과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남원 사매면 대울마을 노인회장, 성금 100만원 기탁

남원시 사매면 대울마을 김학중 노인회장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지정기탁금 100만원을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김학중 노인회장(88세)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 처음 기부를 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분위기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학중 노인회장은 "평소에도 마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노인회장님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달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번 기탁금은 사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 정읍 (주)세창스틸, 취약계층에 성금 600만원 기탁

14년째 이어진 나눔

정읍시 수성동주민센터는 지난 22일 관내 기업인 (주)세창스틸로부터 성금 600만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제2산업단지에서 위치한 (주)세창스틸은 자동차부품 강관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다. 지난 2013년 경기도 안산에서 정읍으로 본사를 이전한 이후,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기업의 성장을 지역사회와 나누기 위해 14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웃돕기 성금

을 기탁하며 지역 상생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이재선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을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수홍 동장은 "올해도 어김없이 지역 주민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이재선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 주신 뜻을 잘 받들며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수성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



정읍=김정인 기자



고창 상하면 (주)제이케이건설,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고창군 상하면 소재 제이케이건설(대표 이영순)은 지난 22일 상하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영순 제이케이건설 대표는 상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5기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등 다양한 지역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지역 인사다. 또한 배우자인 손진국 상하면 주민자치위원장 역시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앞장서며 모범적인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 익산 '죽림농장', 취약계층에 떡국떡 500상자 기탁

"명절 온기 전하는 데 도움 되길"

익산시에 이웃들의 식탁에 온기를 더하는 나눔이 전달됐다. 익산시는 지난 23일 '죽림농장(대표 진택섭)'으로부터 떡국떡 2kg 500상자(600만 원 상당)를 기탁받았다. 이날 기탁된 떡국떡은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 가정과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 등에 전달

될 예정이다. 진택섭 대표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농장을 운영해 올 수 있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떡국떡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가 되고, 명절의 온기를 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기부해 주신 떡국떡은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신속하게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 [인사]

농촌진흥청 인사발령 (2026년 1월 23일 자)  
 □ 고위공무원(전보)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장 김수일

# 블랙 아이스 예방법

항상 안전거리 확보하고 서행 운전 하기

급출발 및 급가속, 급제동, 급회전 금지

미끄러졌을 경우,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 조작하기

브레이크 여러 차례 나누어 밟기

스노우 체인이나 스노우 타이어를 사용하기

〈一事一言〉



왜 사람들은 이단 집단에 쉽게 빠질까?

김근수  
해방신학연구소장

종교 분야에서 끊이지 않는 수 수계끼중 하나가 “왜 멀쩡한 사람들이 이단 집단에 빠질까?”이다.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안다는 사람조차 이단 집단에 빠져 돈을 털리고 영혼도 저당 잡힌다. 이단 집단에 빠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가.

이단 집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단 집단에 빠지는 사람이 생기고, 이단 집단에 빠지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단 집단이 더 날뛰는 것이다. 이단 집단을 해체한다면, 이단 집단의 피해자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단 집단은 대체 왜 생겨나고 왜 쉽게 사라지지 않을까?

이 주제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려면 먼저 수천 페이지도 부족할 것이지만, 나는 오늘 칼럼에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싶다. 적어도 세 질문에서 논의를 시작하자.

1.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2. 이단 집단을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3. 사람들이 이단 집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교회성당은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나.

이단 집단에 빠지기 쉬운 사람은 누구일까. 이단 집단에 가담하여 무엇인가 얻으려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이단 집단에게 속지 않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욕심을 버리는 일이다. 돈 욕심 없는 사람이 사기 당하는 경우는 드문 것처럼, 욕심 없는 사람은 이단 집단에 잘 빠지지 않는다. 선하고 욕심 없고 정의로운 사람은 이단에 결코 빠지지 않는다.

지금 이단 집단에 빠져 고통받

는 사람은 자신에게 냉정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어떤 욕심 때문에 나는 이단 집단에 들어왔는가? 내 자신은 선하고 욕심 없고 정의로운가?” 이단 집단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 이단 집단의 흥계에 속았다 하더라도, 이단 집단의 속임수에 당한 개인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없지 않다.

고 안성기 배우가 오래전 어린 아들에게 남긴 편지의 일부분이다. “내 아들 다빈아, 이 세상에서 참으로 바랄 수 없이 필요한 것이 라면, 바로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단 집단에 이미 빠진 사람에게, 이단 집단에 빠지기 쉬운 사람에게도 꼭 들려주고픈 말씀이다.

도둑이나 사기꾼은 물건이나 돈을 훔치지만, 이단 집단은 피해자의 영혼까지 털어가고 가정 파탄까지 일으킨다. 이단 집단이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피해 범위와 정도에서 도둑이나 사기꾼이나 범죄 조직의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이단 집단은 종교 단체가 아니라 범죄 집단에 가깝다.

정부는 이단 집단은 개인 범죄 차원이 아니라 사회와 차원에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통일교 특검, 신천지 특검을 어서 실행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한학자와 이만희를 구속하라. 통일교와 신천지를 해산시키고, 그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라.

이단 집단이 정치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범죄 행위를 벌이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있을까. 그런 현실 앞에서 교회성당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스도교 역

사에서 이단 집단과 관련하여 거의 언제나 두 현안이 있었다.

그리스도교는 외부의 이단 집단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리스도교 내부의 흐트러진 믿음과 행동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사람들이 예수에게 가까이 가도록 올바르게 가르치고 실천하는 일이 우선 중요하다. 예수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편들고, 예수처럼 약의 세력에 저항하는 일이다. 가르치지만 말고, 먼저 실천해야 한다. 목사신부들이 앞장서서 가난한 사람들을 편들고 약의 세력에 저항해야 한다. 목사신부들은 설교만 하지 말고, 말만 앞세우지 말고, 실천으로 먼저 증거하라.

교회성당은 이단을 비판하는데 그치지 말고, 이단이 생기지 않게 예방하고, 이단에게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 먼저 교회성당을 깨끗이 정화하라. 먼저 목사신부들이 깨끗이 살아가라. 먼저 목사신부들이 선하고 욕심 없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 그것이 이단을 효과적으로 막는 가장 올바른 길이다.

로마제국의 식민지 통치에 분노한 예수는 동포들에게 먼저 회개하자고 요청했다. 회개에 그치고 머물러는 말이 아니라, 회개에 기초하여 철저하게 약의 세력에 저항하자는 제안이었다. 자기 회개는 약의 세력에 저항하는 데 가장 빠른 지름길일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개인이 이단 집단의 나쁜 유혹과 영향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단 집단의 폐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없애려면,

교회성당의 회개가 먼저 필요하다. 행동 없는 믿음이 아무 쓸모 없듯이, 회개 없는 저항은 아무 효과 없다.

그러므로 이단 집단에 빠지지 않는 소박하고 현실적인 대책 세 가지는 자명하다. 우리가 먼저 선하고 욕심 없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자. 이재명 정부는 종교를 방자한 이단 집단을 엄하게 다스려라. 교회성당과 목사신부는 앞장서서 가난한 사람들을 편들고 약의 세력에 저항하라.

역사학자 백승중 교수는 말했다. “역사를 공부하며 얻은 뼈아픈 교훈이 있다면, 민주주의는 자전거와 같아서 폐달을 밟지 않으면 반드시 쓰러진다는 점이다. 미국 극우의 발흥은 인종차별과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외면한 대가다.”

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다. “신학을 40년 공부하며 얻은 뼈아픈 교훈이 있다면, 종교는 자전거와 같아서 자기개혁이라는 폐달을 밟지 않으면 반드시 쓰러진다는 점이다. 한국 이단 집단의 발흥은 종교의 자기개혁이라는 끊임없는 숙제를 외면한 대가다.”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게 게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균형발전의 성패, 전북 3대 성장엔진에 달렸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신재생에너지·첨단 AI모빌리티·푸드헬스테크 등 3대 성장엔진을 앞세워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5극3특 성장엔진’ 전략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도록 설계된 국가적 대전환 정책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 아래, 전북은 ‘3특’ 가운데서도 상징성과 잠재력을 동시에 지닌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북이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전략은 새만금이라는 국가 자산을 기반으로 한 현실적 대안이다. 2030년까지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은, 단순 발전을 넘어 생산·저장·활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지향한다.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수소 기반 P2G 기술로 보완하고 RE100 산업단지와 연계해 수소 생산·저장·연료전지·모빌리티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은 전북을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실험실이자 실증 거점으로 만들 수 있는 전략이다.

첨단 AI모빌리티 역시 전북의 산업적 저력을 보여준다. 현대자동차와 타타대우, TYM, LS엠트론 등 완성차 중심의 제조 기반에 더해 피지컬 AI 연구개발 생태계와 에타 면제 대형 사업을 확보하며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을 선점했다. 새만금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와 산업단지, 농기계 실증단지 등 제조업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국가적 인프라로 손색이 없다.

푸드·헬스테크는 전북만의 비교우위

가 가장 뚜렷한 분야다. 종자·스마트농업, 발효미생물, 국가식품클러스터, 전임상·임상 인프라, 천연물 산업까지 지역별로 축적된 자원이 하나의 ‘원링크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다. R&D부터 비임상·임상, 완제품 생산까지 한 지역에서 완결되는 구조는 전북특별법 특례와 새만금 메가샌드박스 결합될 때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정부는 성장엔진으로 선정된 산업에 인재양성, 규제완화, R&D와 재정, 펀드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는 전북이 단순한 수혜 지역을 넘어 지역 주도 투자유치와 산업 혁신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기회다.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을 효과적으로 끌어내는 동시에, 도와 14개 시·군, 산학연이 서로 긴밀히 협력해 속도감 있는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전북이 스스로 성장의 주체가 될 때 ‘3특’ 전북은 상징적 명칭이 아닌 도민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실체로 자리 잡을 것이다.

아울러 이번 성장엔진 구상은 전북 내부의 역량 결집과 행정의 실행력이 함께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산업 선전에 그치지 않고 기업 유치, 인재 정착, 지역 상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전북은 새만금이라는 국가적 자산과 함께 에너지, 모빌리티, 바이오 분야에서 타지역이 갖추지 못한 실증 인프라와 함께 축적된 산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민국 신성장 지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번 3대 성장엔진 도전이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실질적 성과로 증명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문화재 열전



청동은입인동문향로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물, 불교공예, 공양구  
-지정일 - 1974년 9월 27일  
-시대 - 여말선초  
-소재지- 익산시 웅포면  
송천리 산5-2번지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1월 26일 월요일

2011년 10월01일 창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22(윤리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9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부안지국 010-7247-3947	부안지국 010-7247-3947
종양지국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6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주지국 010-8640-6865	익산지국 010-9560-3075
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발백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정읍지국 010-2800-2934	정읍지국 010-2800-2934
정읍지국 010-2800-2934	정읍지국 010-2800-2934	정읍지국 010-2800-2934
정읍지국 010-2800-2934	정읍지국 010-2800-2934	정읍지국 010-2800-2934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물의 처녀 / 문정희

붉은 물이 흐른다  
더 이상은 벌릴 수 없을 만큼  
크게 벌린 두 다리 사이  
하늘 아래 가장 깊은 문 언덕  
차욕 중의 차욕의 자태로

참혹한 죄인으로 죽을까지 당도한다  
드디어 다산(多産) 처녀의 속살에서  
소혹성 같은 한 울음이 태어난다  
불덩이의 처음과 끝에서  
대지모(大地母)의 살과 뼈에서

한 기적이 솟아난다  
지상에 왔다가 감히 그 문을  
벼락처럼 연 일이었다  
뽀얀 생명이 흐르는 부푼 젖꼭지를  
언어의 입에다 쪽쪽 물려 준 적이 있다

시인 약력 : 1947년 전남 보성 출생. 동국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여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69년 '월간문학' 신인상에 당

선되어 문단에 등단했다. 현대문학상을 수상했다. 시집으로 '문정희 시집', '새때', '떨레', '하늘보

안' 등을 출간했다. '공초문학상' '이용악문학상' '목월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국립한국문학관 관장과 제40대 한국시인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전북의 변화, 전북타임스가 함께 합니다”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0 구독신청 282-9600



## 정읍시 적극행정이 만든 혁신과 나눔 선순환 2025년 최고 적극행정 유공공무원 임경수 고부보건지소장 선정

전국 최초 '시니어닥터 지역주치의제도'  
농촌 의료공백 해소·주민 체감도 높여  
고부보건지소에서 제도 성실히 구현돼



정읍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시니어닥터 지역주치의제도'가 농촌 의료공백을 줄이고 주민 체감도를 끌어올린 적극행정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정책의 실행 성과가 중앙부처 평가와 수상으로 이어진 데 더해, 현장 실무를 책임져 온 공직자가 포상금 전액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며 "성과는 시민에게 되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현장에서 증명했다는 평가다.

시작은 이학수 시장이 시니어 의사를 직접 채용해 지역 주치의로 활용하는 제도를 기획·구상한 데서부터 출발했다. 이학수 시장은 농촌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시 정읍아산병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임경수 원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 의료 현실을 설명하고 지역주치의 역할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정책적 설득과 현장 공감에 맞물리며 '시니어닥터 지역주치의제도'가 본격 추진됐고 단발성 진료에 그치지 않고 상담-관리-연계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의료 흐름이 구축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보건지소의 역할이 주민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생활 밀착형 의료 플랫폼으로 전환되고 있다.

정읍시는 임경수 고부보건지소장을 '2025년 정읍시를 빛낸 최고의 적극행정 유공공무원'으로 선정하고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했으며 임경수 지소장은 전액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선뜻 기탁했다.

"농촌 현실의 답은 현장에서부터" - 정읍시가 만든 제도 혁신

정읍시 시니어닥터 지역주치의제도는 농촌 지역이 겪는 구조적인 의료 불편을 행정이 설계로 풀어난 모델로 평가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에서 필요할 때 병원을 가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되는 현실, 만성질환 관리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문제, 이동·교통 여건으로 인한 진료 공백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하나의 제도로 묶어 해결하고자 한 것이 출발점이다.

1년여 고부보건지소 현장 - "제도는 종이 위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제도가 설계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현장에서의 실천이 중요하다. 고부보건지소에서 1년여 근무해 온 임경수 지소장은 제도가 주민들에게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씩 풀어냈다.

예를 들어, 고령 주민들은 본인의 증상을 '병명'으로 설명하기보다 "어지럽다", "잠이 안 온다", "숨이 찬 것 같다"처럼 생활 언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초기에는 상담 시간이 길어지고 전달 과정에서 혼선이 생기며 진료 연계가 매끄럽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임경수 지소장은 상담 흐름을 주민 눈높이에 맞춰 정리하고 반복 상담을 통해 "어떤 증상이 언제부터, 어떤 상황에서 심해지는지"를 차분히 기록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의료진에

게 전달되는 정보의 질이 높아지면서 진료 연계의 정확도와 속도 역시 함께 개선됐다는 것이 현장 평가다.

"처방은 늘고 불편은 줄었다" - 고부보건지소에서 나타난 변화

임경수 지소장이 부임한 이후 고부보건지소의 진료 환경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 강화와 함께 처방 건수와 처방 약품 활용이 증가하면서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다.

고부 지역은 인근에 약국이 없는 농촌 지역 특성상 진료 후 처방을 받더라도 약을 구하기 위해 추가 이동이 필요해 고령 주민들의 불편과 부담이 컸다. 기존에도 보건지소를 통해 일부 처방 약 제공은 가능했으나 구비 약품 수가 제한적이어서 진료 후 다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임경수 지소장은 진료 흐름과 주민 이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건지소 내 처방약 구비 품목을 기존 20종에서 36종으로 확대하는 등 운영 체계를 개선했다. 그 결과 진료 후 추가 이동 없이 필요한 약을 즉시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며 치료 이행을 향상과 함께 주민 만족도 역시 크게 높아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임경수 지소장 부임 이후 고부보건지소의 처방 약품 활용 건수는 이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단순 상담에

그치던 진료가 지속적인 복약 관리와 질환 관리로 이어지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진료를 받고 바로 약까지 받을 수 있어 훨씬 편해졌다", "몸이 안 좋아도 병원에 가는 부담이 덜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시니어닥터 지역주치의제도가 농촌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생활 밀착형 제도'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현장에서는 만성질환 관리에서 특히 '꾸준함'이 가장 어렵다고 말한다. 임경수 지소장은 주민과 한 번 상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주기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 의뢰기관 연계를 검토하는 등 지속 관리의 리듬을 만드는 데 무게를 뒀다. 주민 입장에서 '내 이야기를 기억해주는 보건지소가 생긴 셈이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수록 참여와 협조가 늘어나면서 정책 효과도 함께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반응이다. "예전엔 아프면 참고 넘겼는데 이제는 먼저 상담을 받게 됐다", "병원에 가기 전에도 물어볼 곳이 생겼다"는 현장 피드백은 이 제도가 단순한 행정 성과를 넘어 생활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과는 '수상'으로, 신뢰는 '기부'로 - 적극행정의 확장

정읍시 시니어닥터 지역주치의제도는 중앙부처 평가와 포상을 통해 정책적 확장 가능성도 확인받고 있다. 주민 만족도, 진료 연계 실적, 지속 관리 기반 강화 등 정량·정성 지표가 함께 개선되며 "현장에서 작동하는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 속에서 임경수 지소장의 포상금 전액 기탁은 공직의 가치와 적극행정의 방향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상징적인 장면이 됐다. 임경수 지소장은 "포상은 개인에게 주어졌지만, 성과는 시민과 현장이 함께 만든 것"이라며 "작게나마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학수 정읍시장 "정책의 목표는 결국 시민의 삶 - 적극행정 선순환 만들 것"

이학수 정읍시장은 "시니어닥터 지역주치의제도는 농촌 현실에서 출발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 설계한 최고의 정읍형 적극행정"이라며 "현장에서 제도를 성실하게 실행해 온 임경수 지소장의 노력과 포상금을 다시 이웃에게 돌려준 따뜻한 결단은 공직사회가 지향해야 할 책임과 품격을 함께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정읍시는 앞으로도 시민 체감이 분명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성과가 지역 공동체의 신뢰로 이어지는 적극행정의 선순환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민 기자

